

2011년도 육계산업 전망

닭고기 수급동향과 2011년 전망

남 경 수 위촉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년 전반기 호황을 누렸던 육계산업은 하반기에 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종계 입식 마리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병아리 생산이 증가하고, 이는 육계 사육 마리수 및 도계 마리수를 증가시켜 궁극적으로 공급과잉 현상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2011년 까지 이어질 전망으로 육계산업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본고에서는 2010년 육계산업을 되돌아보고, 그 연장선상에서 2011년을 조심스레 전망하고자 한다.

1. 2010년 육계 사육

2010년 종계 입식 마리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향후 육용 실용계 병아리 생산 및 육계 사육 마리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11월 종계 입식 마리수는 46만마리였으며, 종계 사육 마리수는 686만마리로 집계 되었다. 따라서 2010년 11월까지 육용 종계 평균 사육 마리수는 전년 동기간에 비해 8.3%가 증가한 645만 마리(성계 : 5.4% 증가한 398만 마리)로 나타났다.

또 다른 지표인 11월까지의 육용 종계(Parents Stock, PS) 배합사료 생산량을 보더라도 전년 동기간(23만 5천 톤)보다 8.9% 증가한 25만 6천 톤으로 집계되었다.

종계 사육 마리수 증가 및 육용종계 배합사료 생산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2010년 육용 실용계 병아리 생산은 5.2%, 육계 평균 사육 마리수는 5%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추세를 보면, 당분간 육용 실용계 병아리 생산 및 육계 사육 마리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육계 사육현황 (단위: 만 마리)

구분	총계 입식	총계 사육 (월 평균)	병아리 생산	육계 사육 (월 평균)
2010년(A)	673	645	60,771	7,808
2009년(B)	586	596	57,785	7,244
증감률(A/B)	14.8%	8.3%	5.2%	5.0%

※ 주 : 1. 2010년 12월 총계 입식 마리수는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2. 2010년 10~12월 병아리 생산 마리수는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3. 2010년 육계 사육마리수는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2009년 3, 6, 9, 12월, 2010년 3, 6, 9월은 통계청 발표치)

※ 자료 : 대한양계협회

2. 2010년 닭고기 수급

먼저 닭고기 공급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계 마리수와 수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010년 육계 사육 마리수가 늘어나고, 월드컵과 배달용 치킨 원산지표시제 시행 등으로 닭고기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2010년 도계 마리수는 2009년보다 6.1% 증가한 7억 2천 만마리로 추정된다.

또한 10월 중순까지 닭고기 국내가격이 강세를 보이면서 11월 닭고기 수입량도 전년 동기보다 75% 증가한 6,911톤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2월에 들어서는 국내 닭고기 생산량이 증가하고 육계 산지가격이 하락하면서 12월의 닭고기 수입량은 전년보다 5.3% 정도 감소한 5,500톤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닭고기 총 수입량은 전년보다 68%

증가한 97,889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닭고기 소비는 일반적으로 계절성을 가진다. 여름철 복 수요로 5~8월까지의 소비가 많은 기간이며, 나머지 9~4월은 소비가 적은 기간이다. 월별로 살펴보면 복절기인 7월이 소비가 가장 많은 시기이고, 9월부터 2월까지의 소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월이 가장 소비량이 적은 시기이다. 단 연말 소비의 영향으로 12월에는 수요가 일시적으로 증가한다.

2010년에는 월드컵이라는 특수 기간도 있었고, 배달용치킨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를 시행했기 때문에 닭고기 소비가 전년에 비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패널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0년(1~9월) 가구당 4주 평균 닭고기 구매량은 전년 동기기간보다 5.6% 증가한 1.9kg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7월 이후 소비자 가구의 닭고기 소비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며, 농업관측센터에서 실시한 소비자 의향조사결과 2011년 1월 소비의향 지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닭고기 공급량은 증가하나, 소비는 감소하는 상황을 우려해야 한다.

3. 2010년 육계 가격

2010년 12월(22일)까지 육계 평균 산지가격은 1,911원으로 전년 동기기간대비 1.5% 낮게 나타났다. 4월까지의 지속적으로 높은 가격을 유지했지만 5~8월 전년대비 하락했고,

9월 잠시 상승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육계 가격의 하락은 공급량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향후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산지가격약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가격은 지속적 강세를 보였으나, 육계 산지가격 하락세가 반영되어 11월 이후 전년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다. 육계 산지가격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소비자가격도 전년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4. 2011년 수급 및 가격 전망

2010년 7월 이후 급격히 증가한 종계 입식 마리수의 영향으로 2011년 닭고기 공급량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육용 종계 생산성이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병아리 생산 잠재력을 계산한 결과 2011년 6월까지 2010년 동기간대비 13% 이상 높게 유지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병아리 생산 잠재력이 높아 2011년 전반 기간 도계 마리수는 2010년 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국내 생산량 증가와 국내가격의 약세로 수입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닭고기 공급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가격하락은 불가피해 보인다.

따라서 2011년 3월까지 육계산지가격은 2010년보다 약 30%가량 낮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병아리 생산 잠재력이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어 육계산업의 공급과잉현상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육계 가격약세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닭고기 공급과잉은 2010년 7월 이후 종계 입식 마리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미리 예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열업체의 시설증축 등으로 종계 입식 마리수는 감소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공급과잉현상은 2011년 전반기뿐만 아니라, 하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5. 2011년 국제시장 동향 및 전망

2010년 닭고기를 가장 많이 수출한 국가

〈표 2〉 2011년 6월까지의 병아리 생산 잠재력 추이

구분	1	2	3	4	5	6
2011년(A)	113.3	113.0	118.4	125.2	132.5	134.9
2010년(B)	98.8	99.6	103.7	110.3	117.0	119.1
증감률(A/B, %)	14.7	13.4	14.2	13.5	13.3	13.3

※주 : 잠재력 지수는 입식된 최근의 육용 종계 생산성이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7개월전 10개월 누적치를 이용하여 계산했으며, 2009년 1월 병아리 생산 잠재력을 100으로 함

※자료 :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는 브라질이며, 다음으로 미국, EU-27, 태국, 중국의 순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브라질(31%)보다 미국(61.4%)에서 더 많은 양의 닭고기를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닭고기 수입은 2009년까지 러시아, EU-27, 일본 순이었으나 2010년 일본(9.8%), EU-27(8.9%), 사우디아라비아(8.3%), 멕시코(6.9%), 러시아(6.2%)순으로 추정되었다. 타 수입국들의 수입량 변화는 크지 않으나, 러시아의 수입량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닭고기의 자국소비가 증가하면서 러시아로의 수출량이 감소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국제 곡물가격의 상승으로 사료가격의 인상이 예상되는 2011년 주요 닭고기 수출국의 수출량은 브라질 345만 톤(3% 증가), 미국 302만 톤(2.8% 증가), EU-27 84만 톤(동일), 태국 44만 톤(7.3% 증가)으로 전망되었다.

2011년 닭고기 국제시장 점유율은 이전과

유사하게 브라질(0.5% 증가한 38.7%)과 미국(2.7% 감소한 33.9%)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수입국의 수입량은 일본 76만 톤, EU-27 71만 톤, 사우디아라비아 68만 톤, 러시아 60만 톤, 멕시코 55만 톤으로 추정된다.

6. 2011년 육계산업

수입량이 다소 감소하고, 겨울철 한파의 영향으로 생산성이 악화된다 하더라도 현재 종계 입식 물량의 증가정도를 감안하면, 공급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육계 산지가격의 하락은 불가피하며, 이러한 공급과잉현상은 6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요의 증가는 미미하고 공급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1년 육계 산업은 매우 힘든 한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표 3〉 미국과 브라질의 닭고기 수급전망

구분	미국			브라질		
	2009	2010(p)	2011(f)	2009	2010(p)	2011(f)
공급	15,974	16,386	16,681	11,023	11,420	11,750
생산	15,935	16,348	16,637	11,023	11,420	11,750
수입	39	38	44	-	-	-
수요	16,033	16,361	16,686	11,024	11,421	11,751
소비	12,940	13,426	13,670	7,802	8,071	8,301
수출	3,093	2,935	3,016	3,222	3,350	3,450

※주 : 2010년은 추정치이며, 2011년은 전망치임.

※자료 : USDA, FAS, Livestock and Poultry : World Markets and Trade(Oct, 2010)